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Social Conflict Index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 Cross-section of 7
Countries*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산출된 사회갈등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수준에 대한 현 위치를 파악한 결과, OECD국가 중에 27위인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즉,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갈등관리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갈등관리를 10% 증가시킬 경우 1인당 GDP는 1.75%~2.4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 심화, 계층간 불평등 확대,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 등을 망라하는 여러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행정에서의 갈등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잘 관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이러한 토대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운명에 절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요인으로서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갈등관리, 사회통합, 사회자본(신뢰)과 같은 요소들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갈등은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위협하며, 개인 역량 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은 한 국가가 직면해 있는 내부적인 사회구조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도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갈등에 대해 대내외적 경제환경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중립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갈등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갈등수준의 위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갈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현안이 다양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정책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통합, 갈등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지, 또는 사회갈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사회갈등이 야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사회갈등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을 고찰하여 사회갈등에 포함되는 변수, 예를 들어 지니계수, 동종언어그룹, 모국어 비사용자 비중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갈등을 계층갈등지수, 지역갈등지수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갈등을 계량화된 지표로 나타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불가능한 갈등을 신뢰성 있는 지수로 산출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대리 변수로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비교를 위해 가능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등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사회갈등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고는 거시경제적 접근을 통해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갈등은 경제사회 전반에 비용을 발생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chneider and Wagner, 2011)¹⁾. 반면에, 사회갈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사회갈등 또는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도 협조적이고 비용효과적인 행태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원활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갈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갈등 관리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횡단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1) 사회갈등지수 산출 방법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Rodrick(1999)²⁾의 사회갈등지수³⁾를 기본 틀로 하되,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

1) Schneider Wagner(2011), *Institutions of Conflict Manage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European Union*,

2) Rodrik, D.(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pp.385-412.

3) 사회갈등지수 = 잠재적 사회갈등 / 갈등관리제도

잠재적 사회갈등(latent social conflict): 불평등도, 민족 및 언어 다양성, 사회적 (불)신뢰로 구성.

갈등관리제도: 민주주의 제도의 질적 수준, 사회보험에서의 공공지출로 구성.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등조기경보에 관한 지표⁴⁾ 중에 일부를 선정하였다. 갈등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영역은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부의 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언론자유제한 등이 설명될 수 있다. 갈등요인 중 경제영역에는 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 소득분포 p90/p10

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사회문화영역은 인구 이질성과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로 구분되며, 인구 이질성은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으로, 그리고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는 인구밀집도와 도시인구증가율로 구성하였다. 한편, 갈등관리는 행정/제도 영역으로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적 수준, 부패규제, 그리고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갈등요인, 즉 잠재적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제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개별변

표 1. 사회갈등지수 구성 요소

구성요인	세부영역	설명
갈등요인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 정부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 정보접근제한 -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 언론자유제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 GINI - 소득분포 p90/p50 - 소득분포 p90/p10
	사회문화	<p><인구이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다양성 - 문화다양성 <p><인구구조적 스트레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집도 - 도시인구증가율
갈등관리	행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효과성 - 규제의 질적 수준 - 부패규제 - 정부소비지출 비중

4) 인구구조(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 테러 증가), 경제(경제성가에서의 장단기 변화, 빈곤 또는 불평등 증가, 실업률 증가, 경제적 충격(shocks) 또는 재정위기), 정치관련(특정집단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 행동, 종교지역의 파괴,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실질적 차별 또는 법적 호의, 선거불안정성), 사회적 여론 또는 사회적 요소(사회적 편견 및 intolerance 증가, 데모횟수 증가), 외부적 요인(외부행위자에 의한 특정집단의 개입 또는 지원, 이웃국가에서의 갈등, 난민의 유입 등)

수의 표준화를 통하여 아래의 사회갈등지수가 산출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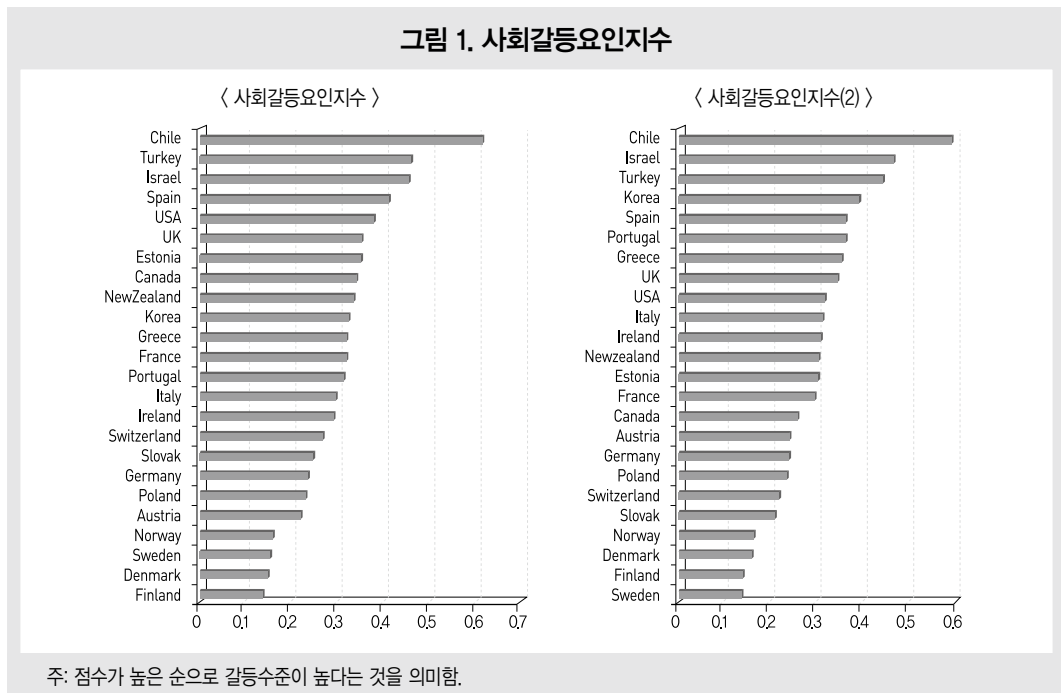
$$\text{사회갈등지수} = \frac{\text{잠재적 사회갈등}}{\text{갈등관리제도}} = \frac{\text{사회갈등요인지수}}{\text{사회갈등관리지수}}$$

2) 사회갈등요인지수 산출 결과

사회갈등요인지수는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⁶⁾,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각 영역을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산출하기 위해 정치갈등과 경제갈등에는 각각 0.4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 인구스트레스 갈등에 0.2의 가중치를, 그리고 인구스트레스 갈등에는 0.2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선형합산하였다. 본 고에서는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갈등요인지수와 갈등요인지수(2)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제시하였다⁷⁾.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요인지수가 산출되었으며,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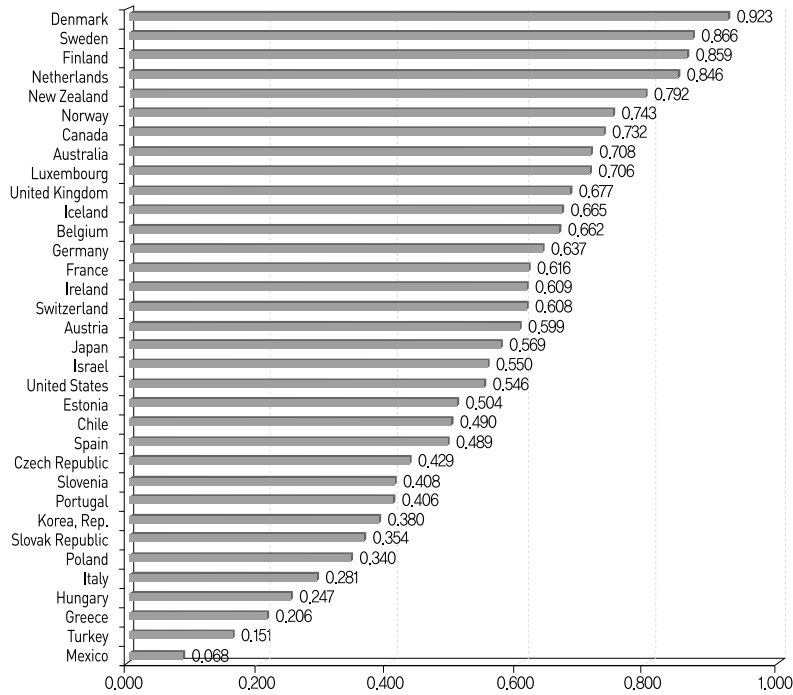


5) 각 지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각 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bias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의 판단 하에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함. 향후에는 보다 객관화된 가중치 부여를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6) 민족문화갈등은 사회분야의 인구가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민족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포함함.

7) 인구가질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갈등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본 고에서는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각각을 산출하여 제시함.

그림 2. OECD 국가의 갈등관리지수 순위



주: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관리가 양호함을 의미함.

지수가 높은 순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요인지수에서는 10위, 사회갈등요인지수(2)에서는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요인지수의 순위가 높은 국가부터 살펴보면, 칠레→터키→이스라엘→스페인→미국→영국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사회갈등요인지수(2)의 순위를 보면, 칠레→이스라엘→터키→한국→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 여부가 종합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갈등관리지수 산출 결과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에 0.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형합산하였다. OECD 국가의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덴마크→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갈등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34개 OECD국가 중에 27위로 취약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4) 사회갈등지수(2) 산출 결과: 사회갈등지수(2) 수(2)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사회갈등지수(2)가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터키→칠레→한국 →그리스→이탈리아 등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표 2.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 비교

	2009년(국가수=28)		2010년(국가수=25)		2011년(국가수=24)	
	갈등지수	순위	갈등지수	순위	갈등지수	순위
Korea	1.175	3	1.090	4	1.043	5
Australia	.	.	0.446	16	.	.
Austria	0.367	20	0.343	20	0.405	16
Belgium	0.438	18	0.443	17	.	.
Canada	0.364	21	0.360	19	0.353	20
Chile	1.292	2	.	.	1.212	3
Czech
Denmark	0.148	28	0.176	23	0.174	22
Estonia	0.583	12	0.591	11	0.605	10
Finland	0.163	26	0.166	25	0.162	23
France	0.449	17	0.458	15	0.484	15
Germany	0.364	22	0.367	18	0.378	18
Greece	1.104	4	1.469	3	1.712	2
Hungary	0.689	11
Iceland
Ireland	0.485	16	0.517	14	0.508	14
Israel	0.914	6	0.874	6	0.849	7
Italy	0.918	5	0.986	5	1.119	4
Japan	0.727	8
Luxembourg
Mexico	.	.	12.087	1	.	.
Netherlands	0.273	24	0.285	21	.	.
New Zealand	0.385	19	.	.	0.384	17
Norway	0.229	25	0.230	22	0.220	21
Poland	0.736	7	0.675	9	0.695	9
Portugal	0.725	9	0.828	7	0.893	6
Slovak	0.559	14	0.592	10	0.599	11
Slovenia
Spain	0.699	10	0.726	8	0.742	8
Sweden	0.162	27	0.166	24	0.156	24
Switzerland	0.361	23	.	.	0.357	19
Turkey	3.301	1	3.447	2	2.940	1
UK	0.537	15	0.523	13	0.513	13
USA	0.567	13	0.569	12	0.581	12

주: 1)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요인지수2)/(사회갈등관리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정치갈등×0.4 + 경제갈등×0.4 +인구스트레스×0.2
 민족문화갈등요소는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2) 지수와 순위가 높을수록 갈등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터키→그리스→칠레→이탈리아→한국→포르투갈 순으로 사회갈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예상대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이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규모와 비슷한 유럽국가인 프랑스와 영국은 2011년에 각각 15위와 13위로 우리나라의 5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11년에 비교대상 24개국 중 12위, 일본은 2009년에 28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의 갈등지수를 보이고 있다.

3.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박준 외(2009)에서는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지수가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갈등으로 인해 1인당 GDP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pooled OLS, 고정효과(Fixed Effect) 또는 랜덤효과(Random Effect) 분석을 통하여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요인지수/사회갈등관리지수로 표현하여 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9년~2011년 동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사회갈등관리와 사회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갈등관리는 사회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고에서 산출한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GDP는 음(-)의 관계에 있음을

표 3.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와의 관계

			갈등관리	갈등요인(1)	갈등요인(2)
2009년 (n=28)	갈등관리	상관계수 (p-value)	1.0000	-0.5286	-0.5787
				0.0038	0.0013
2010년 (n=25)	갈등관리	상관계수 (p-value)	1.0000	-0.6946	-0.7437
				0.0001	<.0001
2011년 (n=24)	갈등관리	상관계수 (p-value)	1.0000	-0.4706	-0.5514
				0.0203	0.0052
'09~'11년*	갈등관리	상관계수 (p-value)	1.0000	-0.5715	-0.6256
				<.0001	<.0001

주: * 국가 및 3개년도(n=77)를 pooling 한 결과임.

표 4.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갈등관리	갈등요인1	갈등요인2	사회갈등지수1	사회갈등지수2
2009년 (n=28)	일인당 GDP	상관계수 (p-value)	0.603	-0.482	-0.513	-0.591	-0.602
			0.000	0.009	0.005	0.001	0.001
2010년 (n=25)	일인당 GDP	상관계수 (p-value)	0.614	-0.532	-0.558	-0.525	-0.537
			0.000	0.006	0.004	0.007	0.006
2011년 (n=24)	일인당 GDP	상관계수 (p-value)	0.642	-0.494	-0.546	-0.625	-0.634
			<.0001	0.014	0.006	0.001	0.001
'09~'11년*	일인당 GDP	상관계수 (p-value)	0.618	-0.502	-0.537	-0.435	-0.453
			<.0001	<.0001	<.0001	<.0001	<.0001

주: *(PPP, Int'l\$)

알 수 있었다.

1) Pooled OLS 결과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를 로그화하여, 사회갈등지수의 β(계수) 값이 1% 변화할 경우 1인당

GDP의 % 증감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pooled OLS를 수행한 결과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GDP의 관계는 예상대로 음(-)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수출과 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여성노동참가율의 경우에는 10% 유의 수준에

표 5. Pooled OLS 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09~'11년	상수	8.112	1.375	5.900	<.0001
	로그(사회갈등지수)	-0.100	0.134	-0.750	0.467
	자본	0.011	0.018	0.620	0.544
	여성노동참가율	0.013	0.007	1.830	0.090
	실업율	-0.012	0.010	-1.230	0.241
	정부지출	0.026	0.017	1.550	0.146
	수출	0.047	0.016	2.880	0.013
	수입	-0.056	0.017	-3.200	0.007

주: 종속변수 = 로그 1인당 GDP
민족문화갈등요소는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서 제한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 결과

OECD 국가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각 국가의 특성이 변화

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
을 수행하였다. 사회갈등지수를 적용하여 고정효
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갈등지수가 증가(감
소)하면 1인당 GDP를 감소(증가)시키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다. 고정
효과모형에서는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증가)

표 6. Fixed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423	0.937	11.130	<.0001
사회갈등지수2	-0.179	0.053	-3.360	0.001
자본	-0.440	0.144	-3.060	0.003
여성노동참가율	0.526	0.196	2.680	0.009
실업율	-0.257	0.062	-4.130	0.000
수출	-0.154	0.194	-0.790	0.432
수입	-0.015	0.226	-0.070	0.946
2009년	-0.094	0.055	-1.700	0.093
2010년	0.001	0.055	0.020	0.988

주: 종속변수 = 로그(1인당 GDP)
민족문화갈등요소는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한다면, 1인당 GDP는 1.79% 증가(감소)하게 되
는 효과가 있다.

사회갈등지수를 분해하여 사회갈등지수를 구성
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
회갈등요인지수(2)⁸⁾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
회갈등요인지수2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갈등관리지수를 10% 증가

시킬 경우, 1인당 GDP는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관리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3) 랜덤효과(Random Effect) 분석 결과

한 국가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완화
하여 랜덤효과(Random Effect)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갈등지수가 10% 증가(감소)할

8) 사회갈등지수(2)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민족문화갈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지수임.

표 7. Fixed Effect 분석결과: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구분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698	0.978	10.93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	-0.120	0.080	-1.500	0.140
사회갈등관리지수	0.241	0.083	2.900	0.005
자본	-0.421	0.145	-2.890	0.005
여성노동참가율	0.464	0.206	2.260	0.027
실업율	-0.258	0.062	-4.130	0.000
수출	-0.172	0.195	-0.880	0.382
수입	0.014	0.228	0.060	0.952
2009년	-0.096	0.055	-1.740	0.087
2010년	0.003	0.055	0.050	0.961

주: 종속변수 = 로그(1인당 GDP)
민족문화갈등요소는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표 8.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368	0.498	16.790	<.0001
사회갈등지수	-0.146	0.032	-4.490	<.0001
자본	0.133	0.038	3.53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279	0.114	2.440	0.019
실업율	-0.055	0.028	-1.940	0.060
수출	0.062	0.081	0.760	0.449
수입	0.026	0.087	0.300	0.768
2009년	-0.018	0.008	-2.440	0.019
2010년	-0.005	0.005	-0.920	0.361

주: 종속변수 = 로그(1인당 GDP)
민족문화갈등요소는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경우, 1인당 GDP는 1.46% 감소(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지

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갈등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갈등관리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 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갈등지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미친다는 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반면,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었다. 즉, 갈등을 치유하고

표 9. Random Effect 분석결과: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구분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294	0.504	16.46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	-0.078	0.074	-1.050	0.301
사회갈등관리지수	0.174	0.042	4.140	0.000
자본	0.138	0.038	3.59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321	0.121	2.660	0.011
실업율	-0.056	0.029	-1.960	0.058
수출	0.090	0.086	1.050	0.300
수입	-0.004	0.092	-0.050	0.962
2009년	-0.020	0.008	-2.570	0.014
2010년	-0.006	0.005	-1.150	0.259

주: 종속변수 = 로그(1인당 GDP)
민족문화갈등요소는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결합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여 OECD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25개국 중 5번째로 갈등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위 20% 수준에 해당된다. 갈등지수 순위가 열악한 국가들은 터키,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었고, 반면 갈등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였다.

사회갈등지수를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갈등요인과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9~2011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랜덤효과(random effect)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갈등과 경제성장의 상관성을 보면, 사회갈등과 경제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갈등지수는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요인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제도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갈등관리로 분해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갈등지수를 구성하는 갈등요인과 갈등관리로 분해하여 고정효과 모형 및 랜덤효과 모형으로 패널분석하여 각각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두 개의 모형 모두에서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갈등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갈등지수는 경제성장과 연관관계가

있는데, 갈등요인보다는 갈등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적으로는 사회갈등관리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사회갈등지수를 10% 증가할 경우에 1인당 GDP는 1.75%~2.41%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⁹⁾. 결론적으로 갈등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갈등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9)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적 수준, 부패규제, 그리고 정부소비지출 비중 증가로 산출한 갈등관리지수를 10% 증가시킬 경우에 GDP(2013년기준, 1,428,294,600백만원)를 약 24조 9,952억원~34조 4,219억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